

제1강 개론(概論)

1. 본서의 방향

가. 본서는 후기선지자에 초점을 맞춘다. 기록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역사적 흐름을 추적할 것이다. 선지자와 그들의 저서에 대해 역사적 시계열을 좇아 추적하려는 시도는 정경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나 정경 선지자들간에 있었던 문화적, 신학적, 역사적 상호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선지자들은 많은 부분 상호의존적이다. 선지자들은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였다. 역사적 위기의 사건이나 시대를 전후하여 선지자들은 활동하였다.

나. 연대기적 배경

1) 신앗수르(Neo-Assyria, B.C. 745-612)

가) 디글랏빌레셀3세(Tiglath-pileser III, B.C.745-727)이 마지막 번성기를 시작하여 아술우발릿2세(Assur-ubalit II, B.C.612-609)로 마감한다

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멸망(살만에셀5세, B.C 722)을 중심으로 전망하였다

다) 신탁을 성문서로 보존하고자 하는 시도가 특징적이다

이스라엘왕	예언자	유다왕	외국왕
여로보암 (785-745)	아모스(760)	웃시아	살만에셀IV (782-773)
스가랴, 살룸 (745)		요담	아슈르 단 (772-755)
므나헴 (745-736)		아하스 (745-727)	아슈르-니나리IV (754-745)
브가히야 (736-735)			
베가 (735-732)	호세아 (750-724)		디글랏-빌레셀3세 (Tiglath-pileser III, 745-727)
호세아 (732-723)			살만에셀 V (726-722)
	이사야 (738-701)	히스기야 (727-698)	사르곤 II (722-705)
	미가 (730-700)		산헤립 (704-681)
		므낏세 (697-642)	에살핫돈 (680-669)
			아슈르바니팔 (668-627)

2) 신바벨론(The Neo Babylonia : B.C. 605-539)

가) 나보폴라살(Nabopolassar)과 메대의 키악스레스(Cyaxeres)의 동맹으로 앗수르 패망(B.C 610)후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II, 605-562)이 등극하여 수리아, 팔레스타인지역 통치하였다

나)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에스겔, 오바다 선지자가 남유다멸망(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B.C 586)과 유수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다

이스라엘왕	예언자	유다왕	외국왕
	스바냐 (630-620)	요시아 (639-609)	나보폴라살 (Nabopolassar, 626-605)
	예레미야 (627-583)		
	나훔 (612)		
	하박국 (609-597)	여호아하스 (609)	
	다니엘	여호야김 (608-598)	느부갓네살2세 (Nebuchadnezzar II ,605-562)
	에스겔 (593-571)		
		시드기야 (597-587)	
	제2이사야 (550-538)		에월프로닥 (Evil-Merodach ,562-560) 네리글리사르 (Neriglissar ,560-556) 나보니두스 (Nabonidus ,556-539) 고레스2세 (Cyrus II ,539-530) 캄비세스2세 (Cambyses II,

			530-522) 다리우스1세 (Darius Hystaspes, 522-486)
	학개 (520)		
	스가라 (520-518)		
	제3이사야		

3) 페르시아

가) 다니엘, 학개, 스가라, 요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 고레스칙령(B.C 538)이 새로운 시대의 서곡이 되고 여호야긴석방(B.C 562)은 희망의 단서가 되었다

2. 초기단계

가. 선지자의 기원

1) 마리 사본(The Mari Documents)

2) 선지자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

구약의 용례들을 요약해보면 ‘나비’의 기능은 상전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상전이지만 아론의 경우에 상전은 모세였다. 선지자들에 관한 한, 그 상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였다. 선지자들의 말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두셨으며,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 양쪽 당사자는 하나님과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곤 하였는데, 그는 이일을 자신의 입 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다. Young은 구약성경 자체의 용례에 근거해서 ‘나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명사로부터 파생된 동사인 ‘예언하다’를 고찰하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때때로 선지자들의 특징으로 사무엘시대의 선지자 무리(삼상 19:24), 예레미야(렘 29:26)등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2차적인 의미로 무엇보다도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은혜가운데 세우신 사람들의 기관이였다.

가) 하나님의 사람(אִישׁ אֱלֹהִים) : 특별한 임무를 위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을 뜻하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과 선견자 두가지 명칭이 적용되었다 (삼상 9:6-10)

לְפָנִים בְּיִשְׂרָאֵל כֹּה־אָמַר הָאִישׁ בְּלָכְתוֹ לְדְרוֹשׁ אֱלֹהִים WTT 1 Samuel 9:9

לְכוּ וְנִלְכֶּה עַד־הָרָאָה כִּי לִנְבִיא הַיּוֹם יִקְרָא לְפָנִים הָרָאָה:

NKS 1 Samuel 9:9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 예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나) 선견자(רֹאֶה)

- (1) 선지자가 겪은 경험의 성격에 따라 선지자에게 입한 특별한 통찰력을 강조
- (2)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나비’이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로에’라고 불렀음(E. J. Young)
- (3) 성공적인 사역의 수행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다) 선견자(חֹזֶה)

- (1) 아모스(암 7:12,14)처럼 선지자적 메시지를 받는 것에 중점을 두어 환상이나 꿈을 통한 경험을 강조한다
- (2) ‘호제’와 ‘로에’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실제로 동의어였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사 30:9,10)

אֲשֶׁר אָמְרוּ לְרֹאִים לֹא תִרְאוּ וְלַחֲזִים לֹא תִחְזוּ לָנוּ נִכְחוֹת
רְבִירוּלָנוּ חֲלָקוֹת חֲזוֹ מִהֶתְלֹת: WTT Isaiah 30:10

라) 선지자(נְבִיא)

- (1)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선포)으로서 선지자의 능동적 사역을 강조한다(“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נְבִי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신 18:18))
- (2) 기록선지자들의 등장 이후 선지자들의 명칭으로 보편화되었다.
- (3) ‘부름을 받은 자’ ‘메시지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해석하여 ‘말하는 자’, ‘외치는 자’, ‘고하는 자’로 구약에서 300회 이상 사용되고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고할 뿐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예언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비기록 선지자(Nonliterary prophecy)

- 1) 비기록 예언(선기록 예언 Preliterary prophecy) :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속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을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관찰할 수 있다
- 2) 비기록 선지자들의 관심 : 도덕적이슈보다는 이스라엘민족의 운명과 삶에 관심을 가졌다. 왕에 대한 일종의 양심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을 여호와께 헌신하도록 권면하였다
- 3)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 4) 사역의 대가
- 5) 환상적 경험(ecstatic experiences)

3. 선지자와 그들의 문화

가. 역사와 선지자

여호와께서는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여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주요 관심사들에 대해 간섭하신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간섭의 목적이자 수단이었으며 선지자는 그 증인이었다. 여호와께 계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나타났다. 선지자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좇거나 제도적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보고 위기에서 남은 자들을 인도하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관심사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예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도 없었다. 심지어 이방인 왕들조차도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했다. 선지자의 예언적 행동은 역사적 사건들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다. 선지자들은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깊은 신학적 확신으로 대하였다. 정의와 공평이 모든

시대의 좌표가 되어야 함을 알았고 율법과 예언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선포하였다. 사회가 언약적 규범에서 벗어날 경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호소하였고 다가올 새로운 질서에 대해 예언하였다. 선지자들의 개혁 프로그램은 모든 사회계층 특히 과부와 고아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의실현이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역할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였다. 선지자들의 미래는 임박한 시점과 먼장래의 일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이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남는 것이고 포로이후 유다의 지위회복에 있었다. 포로후기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시대이었다. 포로전후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서로 다르지만 심판과 구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회복으로 종결지어진다.

나. 왕과 선지자

왕국분열이후 8세기까지의 선지자들은 정치적인 경향과 신앙적 동기에 의해 움직였다. 이스라엘의 재통일과 이교적 요소의 축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왕에 대한 신탁이 줄어들고 일반 대중들에 대한 신탁이 많아진 이유는 백성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 회개와 국가적 개혁을 촉진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왕조가 지속적인 개혁유지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두각시킨 것이다.

다. 우상과 선지자

기록선지자들 대부분은 유다의 멸망이 각종 형태의 우상숭배였음을 주지시킨다. 특히 선지자들은 가나안정착당시에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바알신 숭배를 강력하게 금지시켰다. 예언적 관점은 하나님 주권개념과 배타적 신앙요구에 그 기초를 둔다 (출20:3-6; 신5:7-10).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그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사40:12-31)

우상숭배는 여호와신앙에 대한 윤리적초석을 무너뜨린다. 가족관계는 풍요를 기원하는 이교적제사를 통해 특히 성적인 요소를 통해 허물어지고 정의와 공평에 대한 윤리적 요구는 물질적풍요와 성적인 쾌락을 통한 우상숭배로 인해 무너졌다.

포로시대에는 제사장종교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 선지자들은 창조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말씀을 선포함으로 종말론적 신학을 전개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출애굽, 광야 및 가나안정복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새롭게 적용되는 하나의 갱신으로 보았다. 또한 복과 저주의 신학에서 유일신사상과 우상숭배금지가 전혀 새로운 사상이 아닌 모세언약신학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라. 사회적 압제와 선지자

- 가나안정착후 가나안문화에 동화된 새로운 계층발생이라는 사회문제대두.
- 사유재산제도와 부를 축적하는 사회관습이 인정됨으로 부유층과 서민층이 분리
- 이스라엘왕조는 계층분리를 더욱 촉진시킨다. 다윗왕의 통일국가는 솔로몬시대에 이르러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 계층간의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빈부격차심각
- 경제적 격차는 사회적 계층분리를 심화시키고 압제와 부당한 대우 빈번해 짐
- 선지자는 사회개혁가가 아니라 신학적 개혁가이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선지자들의 반응(왕상21장)
- 공의실현을 거부한 왕대신에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 공의(미쉬파트)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잣대(아브라함 헤첼)

- 가난한자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보호(보호)할 자가 없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왕과 관리들이 무관심과 냉담으로 일관하여 그 책임을 회피(回避)할 때 선지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사회적 병폐 - 사회관습개편시도

4. 문화와 선지자

가. 선지서의 형성

나. 문학적 구성

1) 신탁

가) 대상 : 국가, 개인, 이방나라

나) 예언이 포함된 신탁의 난제 : “후대사건의 예언화”(vaticinium ex eventu)

다) 이방에 대한 신탁은 실제 전달되었는가?

2) 환상

가) 자서전적 형식

나) 해설자

다) 환상중 소명을 받은 선지자

3) 시

4) 자서전적 서술

5) 전기적 서술

다. 문학적 형성

1) 자료형성과정의 동기

가) 본질성

나) 선지자의 권위입증

다) 역사적 증명

라. 정경화 과정

1) 정경의 정의

가) 성서(聖書)

성서라는 말의 영어 대응어인 바이블(the Bible)은 원래 ‘책’(書)을 뜻하는 그리스어 비블리온(biblion)에서 나온 것이며, 비블리온은 원래 파피루스를 가리키는 단어인 비블로스(biblos)에서 나왔다. 옛날 이집트의 장인들은 파피루스의 껍질을 채취하고 말려서 글을 쓰는 재료로 만들었으며, 성서시대의 서기관들은 이것으로 두루마리를 만들어 신탁의 말씀을 모아서 바이블(bible), 즉, 책을 만들었으며 그 내용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성서(聖書, the Holy Bible)라고 부르게 되었다.

나) 성경(聖經)

성경이라는 말의 영어 대응어인 스크립추어(Scripture)는 라틴어에서 ‘글’ 혹은 ‘책’을 뜻하는 단어 스크립투라(scriptura)에서 나왔으며 이것의 어근은 그리스어에서 책을 가리키는 비블로스(biblos)와 별 차이가 없지만 후대의 용례에서 ‘종교적인 경전모음’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다. 이리하여 이 용어는 불교경전(the Buddhist Scriptures), 유교경전(the Confusian Scriptures), 이슬람경전(the Islamic Scriptures), 혹은 기독교경전으로서 성경(the Holy Scripture)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경전(scripture)이란 용어는 여러종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성경’(the Holy Scripture)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만 고유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 신탁

성경과 성서외에 기독교에서는 언약(言約)으로서의 성서를 신약(新約, New Testament)과 구약(舊約, Old Testament)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 예수께서 예레미야31:31의 ‘새언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죽음을 ‘새언약의 피’로 해석하며 인용하였을뿐 아니라(눅22:20), 사도바울(고전11:25, 고후3:6, 14)과 히브리서기자(8:8, 13; 9:15; 12:24)도 ‘언약’을 중심으로 ‘옛언약’(舊約)과 ‘새언약’(新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독교에서는 이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라) 정경(Canon)

정경이라는 용어는 주로 유대교와 기독교(개신교, 카톨릭, 동방정교)와 이슬람에서 사용되고 있다. 어원학적으로 볼 때 이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갓대’를 은유적으로는 ‘규범’ 혹은 ‘이상(理想)’을 뜻하는 그리스어 어근(kanon)에서 나왔다. 기독교안에서 정경(正經)은 신학적으로 ‘표준적인 규범’을 뜻하기 때문에, ‘외경’(外經, apocrypha)과 ‘위서’(僞書, psedepigrapha)와 구별되며, 가톨릭교에서는 개신교에서 외경으로 분류하는 책의 위상을 좀 더 높여서 ‘제2의 정경’(deuteron canon)으로 부르고 있다.

요약하자면, ‘성서, 성경, 언약, 정경’이란 용어들은 각각의 독특한 어원, 어감, 그리고 신학적인 강조점이 다르지만, 기독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모두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호교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정경으로서의 성경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아주 길고 복잡한 역사적-신학적 결정체로 선별된 것이다. 수많은 비정경적인 문헌들은 역사 속에서 소멸되고 매우 제한된 내용만이 현재의 정경 속에 포함되며 정경으로 결정되었음을 스스로 증거하여 주고 있다. 정경을 의미론적으로 함축한다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실천에 신적 권위를 가지며,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한정되며 확정되고 완성된 책의 목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정경은 공동체의 경전으로 완성된 ‘책’이며, 그 영감성과 권위에 있어서 ‘비정경적’인 책과 구별된다. 또한 현재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정경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 역사적-본문비평적 지식이 아직은 미완성이고, 학자들과 학파들에 따라 다양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정경화의 과정에 대한 역사적 논증들을 살펴면서 어떤 합일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속에서 형성된 글과 문서와 자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당대와 후대 신앙공동체의 ‘정경’이 되었는가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성경자체의 증거를 따라서 다루어 볼 필요성을 도출해보는 것으로 한다. 성경의 정경성은 후대 공동체가 기존하는 비정경적인 문서나 책에 권위를 부여하여 공동체의 규범으로 만든 ‘후대의 종교적 개념’이라기 보다, 오히려 선지자의 말씀 속에 ‘원래부터 내재된 정경성’이 믿음의 공동체를 창조함으로써 정경으로 보존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김정우는 ‘정경구성의 핵심요소들’이 성경신학계의 중심주제들으로써 정경의 형성과정으로부터 완성까지 지속적인 논쟁의 쟁점이 되어 왔을뿐 아니라, ‘한권의 책’으로 완성된 이후에도 믿음의 공동체에 따라 영감성, 권위성, 규범성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경의 해석자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느냐에 따라 정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달라질 수있다고 보았다. 정경을 다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실천에 신적 권위를 가지며,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한정되며 확정되고 완성된 책의 목록’이라는 다소 폭넓은 정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옳다. 특별히 구약성경안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오경과 전 선지서(역사

서)와 후 선지서가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와 그의 반열을 따르고 있는 권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정경성에 깊은 신학적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즉, 성경의 정경성은 후대의 공동체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결정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결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하게 되는 순환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의 정경성은 후대 공동체가 기존하는 비정경적인 문서나 책에 권위를 부여하여 공동체의 규범으로 만든 ‘후대의 종교적 개념’이라기 보다,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씀속에 ‘원래부터 내재된 정경성’이 믿음의 공동체를 창조함으로써 정경으로 보존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3) 선지서의 정경적 요소

- 가) 예언의 정확성
- 나) 언약적 신앙의 소유여부
- 다) 공동체의 권위

4) 정경화 과정(T.H.Robinson)

- 가) 짧은 구전(口傳)
- 나) 작은단위의 신탁자료집
- 다) 격언과 선지자의 전승이 포함된 자료
- 라) 대, 소선지서

5) 히브리 구약성경 분류

가) 율법서(תור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 예언서(נביאים)

(1) 전기예언서 -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2) 후기예언서 -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12권)

다) 성문서(כתובים)

(1) 시서(אמרת) - 시편 욥기 잠언

(2) 오축서(מגילות) - 아가서(유월절) 룻기(칠칠절) 애가(아빕월) 전도서(장막절) 에스더(부림절)

(3) 네사서(ספרים רביעי) -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